

# 사드(THAAD) 한국 배치 임박! 백해무익 사드 막아야 합니다!

## 사드 조기 배치를 다그치는 미국!

- 미국은 2016년 **상반기**까지, 늦어도 **연말**까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 미국은 **평택**과 **군산**을 배치 후보지역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관, 대구, 원주, 기장(부산)**도 후보지역입니다.
- 사드가 배치되면 인근 주민 건강과 생활이 강력한 전자파로 위협받고,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사드 물망’ 평택, 주민불안 고조 전자파 피해·상인 생존권 위협 우려 “반대” 목소리  
(경인일보 2016. 2. 12)

사드 군산 배치면 지역 경제 초토화  
(전북 도민일보, 2016. 2. 15)

“대구·왜관 사드 배치 부적절” ... 지역 정치권 대부분 반대  
(영남일보, 2016. 2. 13)

## 사드가 배치되면 평화·안보가 위태로워지고 국가 경제도 큰 타격!

- 한국이 중력을 겨냥한 미일 미사일 방어망의 전초기지가 되어 중력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 사드 배치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망에 가담하게 되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결성되어 동북아가 한미일 대 북중력의 양 진영으로 갈리고 대결이 격화됩니다.
- 동북아에 무한 군비경쟁이 벌어지고 우리의 평화와 안보가 위태로워지며 통일도 늦어집니다.
-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돼 대중국 수출과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 한국은 부지, 전기, 수도 등을 제공해야 하고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운영 유지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늘어나게 될 것(연간 1조원 이상)입니다.
- 한국군도 사드를 도입하게 되어 수 조원의 예산(3조원 가량)이 낭비됩니다.

“한반도 사드, ... 중국 공격 받을 수도” 포스톨 미 MIT공대 교수 인터뷰  
(한겨레, 2015. 6. 1)

중권 사드 공포.. 중 경제보복때 관련주 위험 보고서 잇따라 ... (MK뉴스, 2016. 2. 2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남북 대결과 북미 핵대결을 막아  
한반도와 동북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고  
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 마침내 일본의 전쟁법(안보법) 발효, 시행! 일본군이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고 있습니다!



침략전쟁과 식민지배 미화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  
집단지위권 행사 결정!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전쟁법 발효, 시행!  
침략준비 끝!

##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대외진출을 부추기는 미국! 전쟁법 발효, 시행과 군비증강으로 한반도 재침략 태세를 갖춘 일본!

- 일본은 전쟁법(안보법)을 시행하기 위해 국방비를 늘리고 선제공격 전략과 전력(무기)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쟁법과 선제공격용 무기 도입은 평화헌법(일본) 위반입니다. 이에 아베 정권은 아베 평화헌법마저 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 일본군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일본군은 미군 요구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어 미군 요구로 일본군이 한반도에 출병할 경우 한국이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 일본군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발미삼아 대북 선제공격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군이 북한에 출병하는데 한국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이미 미일과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 방안과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 허용을 국민과 국회 몰래 박근혜 정권이 독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군의 군홧발이 한반도를 유린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바라만 볼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 기도를 막아냅시다!

평화배움터, 시민평화아카데미로 오세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02-711-7292, www.peaceone.org)

정부·지자체·기업 지원 0%, 평통사 회원이 되어주세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02-711-7292, www.peaceone.org)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일 군사동맹 구축 절대 안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내 체결을 다그치는 미국과 일본!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과 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고리!

- 미일은 북한과 중국 봉쇄를 위해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과 군사동맹 구축을 꾀하고 있습니다.
-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이 구축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양국이 직접 군사정보를 공유하면 한일, 한미일 군사동맹이 구축됩니다.
- 한일 군사동맹이 구축되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일본에도 군사적으로 종속됩니다. 한국이 도입하게 될 F-35 전투기도 부품품을 일본으로부터 구입해야 하고 정비도 일본에서 해야 합니다.
-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과 군사동맹이 구축되면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북핵·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제공해주고 북일 교전시 일본을 도와주어야 하는 등 민족을 등져야 합니다.
-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과 군사동맹이 구축되면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한국이 중러와 적대하게 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도 요원해집니다.
- 이명박 정권도 역사와 국민이 무서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끝내 포기했습니다.
-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위안부 야합(2015. 12. 28)으로 일제 식민지배와 만행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한일 군사동맹 구축의 제동 장치를 풀고 기어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한반도가 구한말처럼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군사동맹 구축을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걸고 막읍시다!

# 사드가 남한 방어용? 아닙니다! 중국을 겨냥한 것!

“사드는 중국 노린 미국의 비수 (項莊舞劍意在沛公)”  
(왕이 중국 외교부장, 201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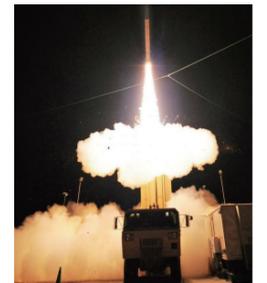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기 위한 것!

- 사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2,000~5,000km로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국의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해 내기 위한 것입니다.
-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사드 레이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슈퍼)그린파인 레이더(탐지거리 600~900km)를 2기 보유하고 있고, 이지스 레이더(탐지거리 1,000km)도 3기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 사드가 대북용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고 그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한 미국의 잔꾀입니다.

“한국에선 미사일방어가 효용성 낮다” (미 의회 보고서, 2015. 4)

사드로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어렵습니다!

- 한반도는 남북 길이가 짧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순식간에 남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막는 것은 애초부터 거의 불가능합니다.
- 노동미사일은 일본과 주일미군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공격한다고 해도 비행시간이 길어 단거리 미사일에 비해 요격당할 가능성이 큼니다.



“국방부, 2013년에 사드 부적합 판정” (진성준 의원실 2015. 5. 21)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의 평화와 안보, 국익을 희생해야 합니까?